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3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를 SP4 리차드 F. 월튼, 주니어 추모 고속도로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

법률(S.6799/A.7616), 오스테고 카운티 버터너츠 타운의 고속도로 시스템 일부를 SP4 리차드 F. 월튼, 주니어 추모 고속도로로 지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오스테고 카운티에 있는 버터너츠(Butternuts) 타운의 고속도로 시스템 일부를 SP4 리차드 F. 월튼, 주니어 추모 고속도로(SP4 Richard F. Walton, Jr. Memorial Highway)로 지정하는 법안 S.6799/A.7616에 서명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P4 리차드 월튼 주니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미국의 영웅입니다. 이번 이름 지정은 그가 나를 위해 바친 인생, 용기,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월튼 주니어는 뉴욕주의 버터너츠 타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곳에서 가족들이 오래 동안 거주했습니다. 1968년에 월튼은 미육군(American Division)의 제101보병대(101st Airborne) 제326의무 대대(326th Medical Battalion)에 입대하여 기본 훈련을 마쳤습니다. 같은 해 11월, 베트남에 1년 파병을 자원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마친 후 동남아시아에서 의무병으로 지원하여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 위해 잠깐 귀국한 후 월튼은 다시 베트남 남부로 돌아가서 임무를 이어갔습니다.

1970년 2월 6일, 베트남에서 일하는 동안 SP4 리차드 F. 월튼 주니어는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Peter Oberack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 군복을 입은 모든 남녀 군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으며 월튼 상병과 같은 일부 군인들은 엄청난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SP-4 월튼은 '총 대신에 수술 바늘'을 사용하여 타인을 도왔습니다. 월튼 상병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리차드 월튼 주니어는 그의 고향인 길버츠빌(Gilbertsville)과 국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알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Joe Angelin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터너츠 타운의 51번 주도의 이름을 'SP 4 리차드 F. 월튼 주니어 추모 고속도로'로 명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리차드가 1970년 베트남에서 보여준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입니다. 리차드는 이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지만 의무병으로 다시 자원 입대하여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이름은 이 고속도로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며 가족들에게는 리차드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